

<글말교실 소감문>

이 9회차 글말특강을 선택한 이유는 나의 어떤 경험으로부터 시작한다. 평소 대외활동을 굉장히 많이 참여했던 나는 이제는 그렇지 않지만, 초창기에 했을 때는 발표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낯설어 했다. 활동자체라기 보단,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주제를 갖고 발표를 해보는 경험이 살면서 거의 전무 했기 때문이다. 한 대외활동에서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를 하는 자리였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본은 준비했으나 완벽히 숙지하지 못한 채 발표 자리에 나서서 대본을 거의 읽다시피 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의 공황장애(?) 증상이 생겼다. 온몸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었던 것 같다. 지금은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 발표를 준비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 익숙해서 이런 것들에서 극복을 했지만, 내 인생에서 기억 남는 경험일 것이다.

김은정 교수님의 '아주 특별한 발표의 기술 top5'에서는 내가 경험했거나 혹은 몰랐던 부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최근 유행했던 스우파 라던지, 예전의 예능 영상을 통해서 예시를 들면서 알려주셔서 더욱 와 닿았던 것 같다. 내가 그 중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다들 기억하겠지만, 리우 올림픽 때 펜싱 국가대표였던 박상영 선수가 했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장면을 통해 설명해주신 것 이었다. 발표 직전에 매치포인트를 앞둔 박상영선수처럼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거나 발에 힘을 주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그려보고 오프닝부분을 꼭 한번 다시 훑어보고 시작하라는 조언이었다. 나의 이전 경험이 떠오르면서 나중에 발표할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표를 시작한 후, 청중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셨는데, 전방 주시율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집중도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점을 알려주셨다. 이걸 면접 준비를 할 때 많이 들어본 말이었는데, 면접이나 발표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시선 교환의 기본원칙 5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첫번째, 청중을 골고루 바라볼 것 두번째, 청중이 대규모일 때는 그룹화할 것 세번째, 시선은 한 곳에 3~5초 동안 응시 네번째, 이동을 통해 시선 배분 조율 다섯번째, 한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한 사람만 볼 것.

이 다섯 가지를 통해 앞으로 발표를 할 때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또한 시선 처리와 함께 비언어적 표현인 손의 위치 같은 몸짓 언어를 알려주셨고, 발표할 때의 움직임을 Presenter's Triangle를 통해 해야한다는 점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알려주신 발표 전 준비, 시선 처리, 몸짓 언어 등은 이 특강이 끝난 후에도 다른 발표나 면접자리에서도 활용해 볼만한 유용한 내용이었던 것 같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대일 코칭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고, 취준생들을 위한 면접코칭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좋은 강의를 해주신 김은정 교수님께 이 소감문을 빌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